

“서해안 교육 수도 ‘군산’”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군산 6+2 종합 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복합교육 플랫폼 조성 등 6대 핵심, 교육역사 자산화 등 2대 특화 구성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군산을 ‘서해안 교육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2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산업 전환과 연계한 ‘군산 6+2 종합 교육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 도시 경쟁력을 연결해 군산을 인구 30만 규모의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글로벌 인재 양성과 명문학교 체계 구축, 미래산업 직업교육 혁신, 복합교육 플랫폼 조성, 의료·영유아 교육복지 확대, 스포츠 교육도시 조성 등 6대 핵심 정책과 해양·과화 교육거점 및 교육역사 자산화 등 2대 특화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 예비후보는 새만금 지역에 국제교과와 설립과 글로벌 교육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상산고 수준 거점 캠퍼스’를 통해 지역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어·국제 특성화고의 기능 전환과 AI 기반 학습 지원 확대를 통해 군산 지역의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 혁신 방안도 제시됐다. 새만금 투자 확대와 조선업 재가동에 맞춰 직업계고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기업과 연계한 취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산업 전환과 연계한 ‘군산 6+2 종합 교육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뒤, 시민들과 화이팅을 하고 있다.

업 예약형 과정’을 도입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학교와 도서관, 체육시설, 돌봄센터 등을 결합한 ‘총도형 복합교육 플랫폼’을 조성해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통합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 전북대 병원과 연계한 의료 인재 양성, 영유아 교육·돌봄 지원 확대, 학교 스포츠 활성화 등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군산의 해양 자원과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육 전략도 포함됐다. 해양 체험 교육과 과학 교육거점을 구축하고, 교육역사박물관 조성을 통해 지역의 교육·관광 자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산업만으로는 도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교육을 중심으로 산업과 지역을 연결해 군산을 글로벌 교육특구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군산=김만호기자

김구의 ‘아름다운 나라’를 묻다 30일 전주 근영중 국제평화수업

김구의 평화사상을 교실에서 되새기는 국제 공동수업이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근영중학교는 오는 30일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한·중·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공동 평화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업은 2005년부터 이어져 온 국제 협력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본과 중국 교사가 함께 참여해 동아시아의 역사와 평화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성찰하는 교육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라는 의미를 더해 그의 저서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나라에 담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학생들의 삶과 연결해 탐구한다.

수업에서는 한국·일본·중국 교사가 각국의 역사적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들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스스로 탐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도내 80개 학교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80개교를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로 선정하고, 26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점학교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행동을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에너지 절감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전주시에너지센터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학교별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 사용량 점검과 함께 학교별 에너지 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오상근 기자

기초학력 선도학교 대폭 확대

전북교육청, 도내 전체 학교의 절반 수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선도학교를 대폭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26일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전체 학교의 절반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선도학교는 담임 또는 교과교사와 협력교사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1교실 2교사제를 통해 학생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99개교(13%)였던 선도학교를 올해 369개교(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1년 사이 약 3.7배 증가한 규모다. 현재까지 목표 학교의 절반 수준인 약 180개교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교육청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 비율과 최근 기초학력 미도달률 변화, 농산어촌 및 교육취약지역 여부, 과밀학



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학교에는 여건과 학생 특성에 따라 전문교원, 협력교사, 협력강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을 배치해 협력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업 시간 개별지도가 어려웠던 농산어촌 학교나 과밀학교에서도 보다 촘촘한 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는 선도학교를 전체의 60% 수준인 445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임실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지원사업에 나선다.

임실교육지원청은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6년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비롯해 장서 관리 지원, 장서점검기 대여, 도서관 이용 및 정보 활용 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해력 향상 독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서관 이용 교육과 정보 활용 교육은 임실도서관 사서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진행하며, 초등학교 3개교와 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또한 전문강사가 참여하는 문해력 향상 독서 프로그램은 4개교 약 70여 명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 맞춤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우선 지원하며, 도서관 운영 컨설팅과 장서점검기 대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임소영 관장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 협력을 통해 사서 미배치 학교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강화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통합시스템 구상안 발표... 3단계 진단이 ‘핵심’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구상을 발표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26일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진단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학습 지원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3단계 진단 시스템이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학습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초3과 중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 진단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 학습 저해 요인이 복합적인 경



우 심리·정서 요소까지 분석하는 통합 진단을 진행하며, 필요 시 전문 검사 도구를 활용한 심층 진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3단계 안팎으로 구축한다. 교실 내 협력수업과 기초학력 지도 학교 차원의 보충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지원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학력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내 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해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인 학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천 예비후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 관리와 학습 전략을 지도하고, ‘독서 300권 프로젝트’와 어휘력 강화를 위한 교재 개발 등 문해력 중심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예체능 활동을 포함한 전인적 기초학력 향상을 추진한다. 1인 1예습·1스포츠 활동을 장려해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기반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기초학력은 학생 미래의 뿌리와 같다”며 “튼튼한 진단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학교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옥 시공 실습.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국내 최고 한옥 교육기관 입증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설계·시공 분야 모두 선정

전북대학교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설계와 시공 두 분야 모두에 선정되며 국내 최고 수준의 한옥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전북대 한옥건축사업단(단장 남해경)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설계 과정에 동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사와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옥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사업으로 두 과정 모두에 선정된 사례는 전북대가 유일하다.

전북대는 한옥설계과정이 도입된 첫 해부터 꾸준히 사업에 선정됐고, 최근 4년간은 설계와 시공 두 분야를 모두 수행해왔다. 그동안 약 2천여 명의 한옥 설계 및 시공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연속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과정은 건축사와 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6개월 과정으로,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이론교육은 전주캠퍼스에서, 실습교육은 고창캠퍼스에서 실시된다. 수료식은 12월에 열리며 교육생들의 성과를 모은 졸업작품전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건축사 및 설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4개월 과정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모집이 진행된다. 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시공관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전주캠퍼스와 고창캠퍼스를 병행 활용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기존 설계 중심 교육을 넘어 한옥 상세도(Shop Drawing)와 BIM 기반 REVIT 설계를

중점적으로 도입할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 수요자들도 재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이론 강의와 설계·시공 실습, 한옥마을 및 건축 답사, 특강 등으로 구성되며, 전북대 교수진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한옥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인다.

현재 고창캠퍼스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한옥건축 실습장이 구축돼 기능 인력 양성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원에는 국내 유일의 한옥 전공 정규학과인 한옥학과를 국내 최초로 운영하며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했다.

국립대와 전북지역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한옥개론’을 개설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K-MOOC와 거점국립대 교양과목으로 ‘한옥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최고의 한옥 교육기관임을 자랑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2026 학교급식 공감·소통의 장’ 연중 추진

전북교육청, 정책 전반 이해력 향상·현장 의견 정책 반영

첫 일정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대상으로 소통의 장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급식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26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6년 학교급식 공감·소통의 장’ 시리즈를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급식 정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일정은 이날 참조내래 시청각실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학부모 급식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올해 학교급식 주요 정책 안내를 비롯해 급식 운영 과정과 모니터링단의 역할, 영양식생활교육 사례 등이 공유됐으며,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환경급식의 필요성과 지역 먹거리 활용,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 지속가능한 급식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대상별 특성과 역할을 반영한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4월에는 학교장

과 유지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학부모 정책모니터링 발대식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영양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영근 문예체전장과정장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공감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소통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시켜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